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mnam

# 자기근본 믿지 않으니 '탈' 많아져

15면에서 계속

씨 병도 낫고 몸도 좋아지고 겁이 나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걸 밟을 때 손가락으로 먹여주니까 기쁘고 애를 쓰는데, 예를 들어 경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 그것은 너무 많고 어려워져 오려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산에 다니니까 산을 보고 물로 가니까 물을 보게 되죠. 식구중에 누가 물어 있을 때는 통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때 그때 용도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물로 갔으니까 통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걸 관했을 때는 바로 주해신이 된다고 소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다

내 몸 못 다스리고  
내 마음 화합 못하면  
가정·나라·세계도  
화합 못하게 하는 것

별죠. 사람이 살아나는데 가지수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일일이 세지 않고 그냥 함이 없이 하고 돌아가니까 가지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것 보면 이것 본다, 저것 들으면 저것 듣는다 하고 일일이 적어놓으면 아마도 힘들어서 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자유스럽게 써라 이랬는데, 그 마음도 자유스럽게 쓰지를 못합니다. 뭐든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살아오던 그 습 때문에 꼭 '아이고' 이거는 언짢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 스님네들한테는 이렇습니다. 잘 되고 못되고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무조건 하는 게 보살행이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보살행이라고요. 여러분도 무조건 생각하셔야지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 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생각이나 한생각이나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만큼 한생각은 그렇게 귀중하고 그냥 생각은 귀중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생각을 하는 것도 이게 저절로 그대로 한생각이지, 생각 따로 있고 한생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한생각입니다. 이 몸 속에 있는 의식들이 다 한데 포함해서 생각이 포함되지 않고 생각이 나올 때가 어쨌습니까. 그러니까 한생각이죠. 그대로 저절로. 그래서 한 몸 한생각 그러니까 모두가 행선도 하나로 들어가고 와선도 하나로 들어가고, 입선도 하나로 들어가니까 전부 참선이지 참선 아닌 게 어쨌습니까.

여러분도 산에 다니면서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청산은 유구한데 사람은 옛사람들이 없더라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없는 까닭에 수없는 진리가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불려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뿐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자기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싸우고,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어쨌느냐. 자기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자기 주인공, 자기 근본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자기 근본 자리를 믿는다면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집 있을 때에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기둥을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기초를 잘못하고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를 다스릴 줄 몰라요. 사람은 일체를 다 알고 지냅니다. 알지만 실천을 할 수 없는 것을 이 도리를 공부할 때 실천을 하고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알기는 다 아시지만 말입니다.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몸을 화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정을 화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화합하지 못하면 바로 나라를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라를 화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가서는 우주를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생각이 그렇게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쓰

지 못하고 그렇게 산란하게 쓰니까 내 가장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보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디에 두고서 깨끗하게 해나갈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사람 사람의 자기 주장자는 정말이지 수억겁을 내려오면서 자재하고 또 그 경험있는 즉 말하자면 자기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장자, 주장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맘 먹고 주장자로 한번 치면 온 세상이 바뀌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도 있는 도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완벽하게 해서 참 한생각을 하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면 과거는 과거가 돼서 버리고 현실은 현실이 돼서 삼세를 현실로 하나로 놓고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란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한사람 한사람 살아나면서 너무나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살다가도 금방 집안에 우환이 닥치는가 하면 도대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한철 이렇게 살면서 자기를 알고 개발해서 또는 지혜물리가 터지게 해서 심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차원이 높은 사람은 법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더 높은 사람은 불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공법입니다.

여러분이 산에 다니시다 보면 매미소리도 듣고 귀뚜라미소리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죠. 여러분이 안가시는데 없죠. 때에 따라서 꽃구경도 가시고 단풍놀이도 가고 그러시죠.

나는 단풍을 볼 때 '아, 너도 단풍이 들었구나. 너도 한철 내년 봄을 기다리려면 비바람도 치고 폭풍도 몰아칠텐데 얼마나 추운 겨울을 참고 견뎌야 하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인생이 다 패서 가는 것과 같으니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대로 팔 구십년 많은 백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일 년살이 아닙니까. 하루살이도 있었지만 일 년살이란다 말입니다. 일 년살이 단풍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웃을 다 버리자 말입니다. 그러면 떨어져 내린 볼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웃을 입을 때까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미가 말입니다. 매미 한가지로 비유하지만 전

가 차가 헐어지면 차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몸뚱이를 버려도 버린 사이가 없는 거죠. 다시 또 새차 내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버려도 버린 사이가 없고 가져도 가진 사이가 없다. 그러니까 생사가 틀이 아니다. 내가 오는 게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생명의 근본 불성이라는 자체는 무슨 간다 온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부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린다 어쨌든 이런 소리는 그냥 바위가 굴러가다가 이렇게 빠들어지고 이탈한다 이런 소리죠.

된다면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위 공장에서 공장 직원이 다 나가면 어떻게 되죠? 하하하하. 또 간장공장에서 직원들이 다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파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장공장에서 직원들이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하면 어느 한 쪽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굳어지는 자체가 바로 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이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자체 근본이 왕이거든요. 왕인데 왕이 그렇게 하니가 그 의식들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

거죠. 지금 내가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은요. 이게 폼으로 찬다고 해도 되지만 한편 사람이 너무 안다고, 아는 것만 시키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시간이 몇시인가 물어보기도 하고, 몇시구나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래야 좀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재밌게 웃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상을 찌 푸리고 울고 살아야만 됩니까. 어떠한 문제라도 닦칠려면 닦쳐라. 닦쳐오는 너도 틀이 아닌 까닭에 죽일 수는 없어. 네가 너를 죽일 수는 없다면 귀신도 그건 범접하지 못해요. 우리는 산 귀신이고 죽은 귀신은 죽은 귀신이죠. 그런데 산 귀신이 죽은 귀신을 못 이겨서야

더욱 더 해야죠. 버려야만 그 자살한 애고 없어진단구요.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보면 작은 일들이지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꼭 쥐고서 그렇게 못워 어렵고 고생을 합니까 글썽. 꿈을 꾸고도 '아이고' 스님, 꿈을 꾸니까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지금 사는 것도 꿈인데 꿈 얘기 하느라고 바빠요. 영화배우들은 연극을 하다가 막을 내리면 그 뿐이죠. 연극이 끝난 줄 알고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죠. 그와 같은 살림이예요. 우리가, 그런데 뭐 그렇게 애를 태웁니까. 좀 말리고 편안하게 기 펴고 가슴 쪽 펴고 살아가 이 소리죠. 아이가 말을 안듣고 아이가 뭐 어쨌고 어쨌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그릇이



그림·최주현

## 아무리 가족·조상이 잘못했다 해도 좋게 생각하면 한생각에 다 없어져

어떻게 합니까. 하하하. 그래서 산 귀신은 죽은 귀신을 하나로 흡수한다. 그렇다면 흡수해서 거기서 활나게 들어왔다 나가면 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돼서 오히려 자기 가정에 심부름꾼으로 보살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충주에 그때 눈이 많이 와서 폭풍 발이 빠지고 웃도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입거나 그렇지 못하고 인제 여름에는 들로 나뉘어서도 겨울이면 한데 합쳐서 입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추운 데를 그때는요, 공부에 미쳐서 추운 것도 몰랐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대로 살았지. 이유 추위 이렇게 해본 예가 없었어.

그런데 가다보니까요, 동네 일꾼이 그 뒤로 그냥 전부 6·25때 죽은 사람들 무덤이예요. 허허 이거 참, 그 모기가 없고 그 팔도 없고 이런 영가들이 전부 고개를 가우뚱하고 나와요. 그걸 모두 한데다 합쳐도 짐쓸 일감이 하나에 내 마음이라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뜻을 아시겠어요? 다 들어가니까 저지 적지 않더라 이거예요. 다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자리가 맞고 크면 큰대로 맞고 작으면 작은대로 자리가 적지 않더라 이거죠.

작은 탓이예요. 그렇게 돼도 못방귀 탁 쐬어야 돼요. '아, 과거에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너 알아서, 네가 다 형성시켜 놓은 거니까 내가 그렇지 않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거기가 내던져 놓으면 그게 자질로 책임을 지고 하게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한테는 놓지 않고 책임을 못 질 사람이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자제해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하하하.

우리의 마음은 일체제불과 우주와 더불어 항상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처님한테 연등부처가 '이 다음에 태어난 석가가 되거라' 하고 수기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수기를 준 연등부처가 따로 있고 수기를 받은 석존이 따로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기의 불성이 발현되고 지금 현재 자기와 과거의 자기가 틀이 아니게 상봉을 한다면 이 통일이 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보살로 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체제불과 같이 찰나찰나 통일이 되고 찰나찰나 모이고 찰나찰나 나누게 되는데 그 까닭은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질이 연등불로 화해서 수기를 준 거지, 다른 부처가 석존한테 따로 수기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를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받은 사람도 없고 준 사람도 없지만 연등불은 그대로 연등불이며, 이 세상에 화해서 수많은 일체제불들의 인연을 다 지으셨죠.

아내가 정신질환 앓고 있어요

문 저의 집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은 병환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가르침에 따라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관하기도 하는데 잘 안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장인어른이 좋지 않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영향으로 그렇지 않은가 해서 여쭙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내가 딴 사람 같으면 뭘해라 될 거예요. 해라 이러했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좀 편리하게 살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해도 한 군데로 몰아서 저 왕왕로다 집어넣어 이 그냥 주인공에다 진짜로 믿고 놔 버려요. 타버리게. 그렇게 하고 '주인공' 당신만이 이걸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낮게 할 수 있죠 하고 자꾸 관하세요. 딱의 마음 이렇게 진경로 진실하더라도 갈 것도 없어요. 그걸 다 없애려면 마음을 그냥 몽땅 비워야지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전부 해결하려면 몽땅 놓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 그냥 버려버려요. 찰나찰나 찰나찰나 두들긴다고 낫는 게 아니예요.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참 장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다 안하시고 공부하셨다고 하는 거요. 그 마음이 부처예요. 자기의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변하지 않는 생명의 근본 자기 불성 믿어야 밖으로 구하면 외도, 자불 찾으면 자기완성

부 거기에 같이 돌아갑니다. 매미가 천일을 땅 속에서 있다가 나오는 데 여러분이 볼 때는 무슨 것 같지만 무슨 것이 아니라 그 짧은을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부딪치고 하면서 매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가 또 다시 감쪽같이 매미라는 웃을 벗고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천일이 되면 왔다가 잠시잠만 있다가 들어갑니다. 만물이 이런 고통을 겪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여러 고통이 없겠습니까. 온하계에 불성도 웃을 벗는데 사람이라고 웃을 안벗었습니다. 자기의 차원이 참 그윽하다면 웃을 벗어도 벗은 차원이 없는 것입니다. 본래는 입어도 입은 사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 윤회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 웃을 벗어도 내 근본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온하계에 또 근본은 그냥 있고 웃만 벗게 되는 거죠. 불성을 말이에요. 근본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예요. 근본은 그냥 두고 그 불성이 웃만 벗게 되면 그것이 공기가 없으니까 그냥 들고 돌면서 가투가 돼서 우리가 사는 세계로 떨어지지요. 세계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판데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지수화공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도 웃을 벗으면 지수화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돌아가고 지수화공이라는 자체도 방편으로 잠시 자기가 차를 쓰다

불성은 움직여서는 게 아닙니다. 부동한 것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해도 여러분 중에 겨우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아주 산란해서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분도 있고, 또 땅 속에서 그저 파랏파랏하게 이파리가 나와서 자라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여러가지입니다. 요즘은 좀 살맛도 있어요. 왜냐하면 땅 속이 그렇게 탄탄한데도 그냥 축축하게 해서 자기가 나오는 줄 모르게 썩이 나와가지곤 향기를 풍기는데, 그 향기는 아주 이 코를 찌르거든요.

공 부를 하다가 아이구 나는 저기서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러고는 자기 저기 옮겨다니는데 그것은 마음이 벌써 완벽하게 보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됐다면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 속에 무슨 이 자리 저 자리를 찾았습니까.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의식들이 '아이고 내가 저쪽 길로 가봐야지,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 저기로 가 봐야지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니까. 자기가 받은 바대로 그대로 행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몸 속에서요. 지금 바에서 행하고 있는 그 도리를 찾아가 자기기를 모르니까 자꾸 자리를 틀려고 하니가 자기 집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이 속에 생명들이, 자기 의식들이, 자기 많은 바를 수행 안하고 그냥 이탈이

도 모르는 직원들이 어떻게 안팎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 지도자가 완벽하게 이끌고 나가다보면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 그냥 절제하게 해가죠.

이 모두가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우리들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법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그 진리는 그대로 있었고, 나시고 나서도 그대로 있으며, 미래에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발전을 하느냐 퇴보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발전을 해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발전을 하는 것은 안되지요. 그러나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발전을 한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사람만 이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생명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갖는다면 더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 산에 다닐 때 나무 밑으로 이렇게 다니다보면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뭣시나 뭣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럴 때 소나무 한 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지는 아주 길게 뻗어있고 서쪽으로는 짧게 돼있어요. 그리고 겹겹이 동쪽은 크게 돼있고 서쪽은 작게 돼있어요. 이런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뭣시나 뭣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이 의식들이 다 한마음이 돼있기 때문에 아주 당박에 알게 되는

협 찬 한마음